

# 소통왕들의 귀환... "공연 많이 목 말랐죠?"

임창정·거미 등 발라드 가수 시동 이달말부터 방역지침 아래 투어 '미스터트롯 톱6' 연말까지 공연

가수들이 잇따라 '진짜' 무대로 돌아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대를 포기하거나 온라인으로만 팬들을 만나왔던 이들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의 1단계 하향 조정으로 속속 오프라인 공연을 재개하고 있다. 이승환, 임창정, 거미, 에일리, 백지영, 노을 등 관객과 소통을 중요시해왔던 가수들이 조심스럽게 전국 투어 개최 소식을 알리면서 팬들도 반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각종 대면 행사가 취소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던 가요계도 '홍행 파워'가 남다른 이들의 공연 재개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미스터트롯 톱6'이 30일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광주, 고양에서 연말까지 공연을 연다. 앞서 8월 서울 올림픽공원 제조경기장에서 회당 5000명의 관객을 수용해 대형 공연의 안전성을 입증한 이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이후 공연 일정을 모두 취소한 바 있다.

주최 측은 기존 실시했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함은 물론 관객 동선이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1일 1회 공연 등 8월 콘서트 때보다 더욱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지키며 공연을 진행한다. 좌석 띄어 앉기를 실시하고 합성과 기립, 단체행동 등



가수 임창정, 거미, 에일리(왼쪽부터) 등 일부 가수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멈췄던 공연을 재개할 준비를 마쳤다.



스포츠동아 DB·뉴스·사진제공 |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은 금지한다.

에일리는 12월부터 전국을 돌며 콘서트를 연다. 5일 경기도 고양 아람누리 아람극장을 시작으로 12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 25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 31일 서울 세종대 대강홀에서 '아이 엠:커넥티드'(I AM:CONNECTED)를 열고 팬들과 만난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무대를 장악해 온 특유의 매력을 오랜만에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 측은 "철저한 방역과 객석 거리두기 등을 시행하면서 코로나

19로 지쳐있는 팬들을 위해 알찬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지영과 노을 등도 12월 전국투어로 팬들 앞에 다시 선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올해 초 계획했던 공연을 무기한 연기한 뒤 오랜만에 무대를 다시 열게 됐다. 그만큼 관객과 공연 스태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다.

임창정도 최근 12월 공연장을 대관했다는 사실과 함께 관련 일정을 공개했다. 이승환은 현재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 좌석제 콘서트 이십세기 이승환'이라는 타이틀로 콘서트를 펼치고 있다.

이처럼 가수들은 잇단 오프라인 공연 무대 재개 속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추세여서 여전히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좌석 띄어 앉기는 물론 전자출입명부(QR코드) 등록 및 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지침을 더욱 철저히 지킬 방침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연예뉴스 HOT 3

### 블핑 '디 앨범' 120만장 판매...걸그룹 최고



블랙핑크

블랙핑크가 정규 1집 '디 앨범'(THE ALBUM)'으로 120만장 판매고를 올려 케이팝 걸그룹 최초로 밀리언셀러가 됐다. 2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디 앨범'은 이날 현재 재까지 모두 120만9543장 판

매됐다. 이는 1990년대 후반 S.E.S의 76만장 기록을 새로 쓰며 걸그룹 최고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최근 10년 동안 미국에서 발매된 전 세계 여성그룹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판매고다. 국내 87만여장, 미국과 유럽에서 31만9300장이 각각 팔렸다. 또 한정판 LP 1만8888장도 매진됐다.

### 외교부, 유승준 비자 발급 허용 않기로

정부는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3월)대법원이 (2015년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절차 요건을 갖추려는 판시"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정을 검토해 다시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기피 논란 속에 입국을 금지당한 유승준은 올해 3월 관련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최근 정부가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 '남산의 부장들', 영화평론가협회 최우수상

이병헌과 주연작 '남산의 부장들'이 한국영화평론가협회로부터 각각 제40회 영평상 남우주상과 최우수작품상을 받는다. 여우주연상과 조연상은 '82년생 김지영'의 정유미와 김미경이 각각 수상한다. 또 남우조연상 수상자로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박정민이 뽑혔다. 감독상은 '윤희에게'의 임대형 감독에게, 신인남녀우상은 '이장'의 박민규와 '찬실이는 복도 많지'의 강말금에게 돌아갔다. 영평상 시상식은 11월11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가수 상위 1% 수입, 전체의 절반

(2018년 상위 63명 기준)

국회 기재위, '빈익빈 부익부' 지적 상위 1% 가수, 1인당 평균 34억 벌어

가수와 연기자 등 상위 1%의 연예인 수입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가수의 경우 1인당 평균 34억원으로, 나머지가 99%의 1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연예계 빈익빈 부익부 양상이 악화하고 있다.

26일 국회 기재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청으로부터 받은 '2014~2018년 업종별 연예인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가수 상위 1%인 63명이 전체 수입의 53.0%를 차지했다. 연기자나 MC를 비롯한 코미디언, 개그맨, 성우를 포함한 배우는 1%인 180명이 전체의 46.9% 비중이었다. 2014년 가수 상위 1% 수입이 전체의 48.1%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상위 소득집중도가 더욱 높아졌다.

2018년 가수 6372명의 수입은 총 4095억78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6428만원이었다. 2014년 4855명의 2864억9000만원에 비해 가수 31.3%, 수입 43.0%가 각

각 늘어났다. 하지만 2018년 가수 상위 1%의 수입은 2171억6000만원, 1인당 평균 34억4698만원에 달하며 99% 가수의 1인당 3050만원의 113배에 육박했다. 2014년 92.7배보다 격차가 더 커졌다.

배우도 1만8072명이 2018년 모두 6531억8000만원을 벌며 1인당 3614만원의 수입을 얻었다. 상위 1% 3064억6000원으로, 배우 1인당 17억256만원이었다.

이 같은 격차는 2000년대 후반 이후 더욱 벌어져왔다.

2009년 국정청에 따르면 배우 상위 10%인 1587명이 연 평균 3억6700만원으로, 나머지 90%인 1만4283명의 620만원보다 324배 수입이 많았다. 또 2011년 가

수와 배우의 연간 소득은 3400만~3800여만원 수준이었지만 '연예보조'는 700여만원에 불과했다. 2017년에는 가수 수입 상위 1%인 28명이 연간 모두 1365억원, 전체의 48.7%를 차지하며 1인당 48억7500만원으로 전체 가수 평균의 48배에 달했다.

이 같은 격차 안에서 일부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 혹은 과소납세 의혹 등이 때때로 불거지면서 연예계 안팎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양경숙 의원은 "연예인의 투명한 수입 신고를 유도하면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로 저소득 연예인들의 생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비타민 타워먼트 리턴업

**Returnup**

남자의 건강기능식품

# CJ 전립소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면역기능, 항산화, 에너지 활력까지! 100% 미국산 소팔메토

10년 연속 판매 1위

NO. 1



※ 09-18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사실적 기준

특별 이벤트

**CJ 전립소**  
소팔메토 파워

맨케어파워 옥타코사놀 3개월분 증정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722-9988

Returnup 리턴업

소팔메토 열매추출물, 비타민 B군 4종, 셀레늄, 아연

건강기능식품 30g(500mg X 60캡슐)